



85년부터 여성이 더 많아

가족개념 부부중심으로 변화된 추세 반영, 이성상에 대한 기대치 다른 것도 중요 원인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지 않는 아내들의 이혼 청구소송이 날로 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78년부터 84년까지 7년동안 총 이혼청구자는 9만3백69명. 이중 남성 4만5천8백43명이 소송을 제기, 평균 5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85년부터 92년까지 8년동안 이혼을 청구한 16만5천9백91명 중 여성이 9만4백26명으로 54.2%를 차지, 여성 이혼 청구소송 증가현상을 보였다.

특히 최근 3년(90,91,92년) 사이에 이혼을 청구한 2만1천6백99명 중 남성이 44.8%인 9천7백18명을 접한 반면 여성이 1만1천9백81명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구자가 증가일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만 한정해서 보면 30대가 41.8%, 20대가 38%, 40대가 16.2% 순.

이혼사유는 지난 15년 동안

부정행위로 인한 것(4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89년까지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남성이 많았으나 89년 이후에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제기하는 여성이 더 많아진 점이다. 지난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남성이 48%인 반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여성은 52%로 집계됐다.

이혼청구 원인 중 또다른 변화 양상은 88년 이전에는 '본인이 학대받은 때'보다 '존속이 학대받은 때' 소송을 제기하는 율이 2.5배 많았으나 이후부터는 반대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본인학대 원인 청구

소송이 존속학대 청구소송보다 3배나 높게 기록됐다.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가부장적 남성우위의 전통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춘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지위를 요구한 데서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일부 사회학자들은 가족의 개념 변화와 성에 대한 가치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한다. 현대의 가족개념은 혈연중심에서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 제도적 가족에서 동반자적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집합체이고 사랑은 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20,30대에 이혼 청구소송이 높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과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른 데서 온 결과로 분석한다. 남성들은 아직까지도 가정적이고 복종적이면서 능력을 갖춘 여성을 원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일을 최우선으로 꼽고 가정일은 남성과 동등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어져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